

‘원정 6연전’ 제주SK “지난해 데자뷔는 없다”

9일 광주 경기 시작으로 33라운드까지 여정 험난
치나리 네게바 장민규 최병욱 등 멀티자원 승부수기

리그 5위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제주SK FC가 두 달간 원정 6연전에 들어가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SK는 9일 오후 7시30분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하나은행 K리그1 2026 28라운드’ 경기를 시작으로 파이널라운드 직전 33라운드까지 6경기 연속 원정경기를 갖는다. 11일 개막하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다음 달 16일 개막하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가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9월 A매치 휴식기를 감안하더라도 험난한 여정의 연속이다. 제주SK는 10승 9무 8패 승점 39점으로 리그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제주SK는 치열한 순위 싸움의 한복판에 섰다. 원정 6연전에서 2위 전북(승점 42점)과의 격차를 줄이

고 파이널 라운드 마지노선인 6·7위(승점 35점)와의 격차를 벌려야 한다. 일단 홈경기를 치른 제주SK는 올 시즌 홈에서만 5승7무5패 승점 22점을 획득하며 홈경기 순위에서는 서울과 전북에 이어 3위이다. 반면 원정경기는 5승2무3패 승점 17점으로 리그 9위로 홈경기보다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시즌에도 제주SK는 4승5무11패로 원정만 떠나면 패하는 수모를 겪었다. 하지만 올 시즌 제주SK는 달라졌다. 세레스틴과 토비아스로 중앙 수비라인을 보강했고 치나리의 전력 강세 후 네게바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고 있는 박수빈, 장민규와 최병



제주SK 최병욱.

제주 제국

욱이 경기 중 포지션 변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는 멀티 자원으로 활약하면서 선수 활용 폭도 넓어졌다. 제주 세르지우 코스타 감독은 “원정 6연전은 분명 쉽지 않은 여정이며 비행기와 버스를 오가는 이동과 짧은 회복 시간은 선수들

의 체력과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환경을 이미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멀티 자원과 로테이션으로 경기력을 극대화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패러글라이딩 김태형 상급조종사부 우승 협회장배 전국 대회… 조종사부 조성원 2위

제주 패러글라이딩이 제25회 대한패러글라이딩협회장배 전국 대회에서 상급조종사부 우승을 차지하는 등 높은 경기력을 과시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패러글라이딩협회에 따르면 제주도 선수단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충북 단양군 두산활공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김태형(스카이랩·사진)이 상급조종사부 1위에 올랐고 조종사부 조성원(클라우드헌터)은 2위, 단체부는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상급조종사부 김태형은 전국의 우수 선수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정상에 오르며 제주 선수단의 저력을 보여 주면서 상급조종사에게만 주어지는 세리머니 타임에서 “패러글라이딩을 20살에 시작해서 30년 만에 전국대



회 우승을 차지한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인 패러글라이딩을 즐기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조종사부, 상급조종사부, 여성·청소년부, 마스터부, 단체부 등 다양한 종목에 전국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이번 대회는 같은 기간 개최된 국제대회와 함께 국내의 선수들이 단양의 비행 환경에서 기량을 겨루며 패러글라이딩의 저변 확대와 스포츠 관광 활성화에도 의미를 더했다.

위영석기자

김지민, 남중 400m 26년 만에 새 역사 교육감배 학교간 육상… 귀일중 한라중 남녀부별 우승

김지민(귀일중)이 2026교육감배 학교 간 육상경기대회 남중부 400m 기록을 26년 만에 경신했다. 지난 5일 제주시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남중부 400m에 출전한 김지민은 53초 36으로 골인하며 지난 2000년 김경호(제주제일중)가 세운 종전 대회 최고 기록 54초0을 약 26년 만에 갈아치웠다. 남초부 김준(제주동초)은 공 던지기 결선에서 56m46을 던져 지난해 박신유(외도초)가 기록한 51m14를 5m 이상 넘어서며 남초부 부별 신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부별 종합경기에서는 한라중이 금 9개, 은 4개 등 총 13개의 메달

을 획득하며 109점을 기록, 신성여중(96점), 위미중(53점)을 제치며 3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남중부에서는 귀일중이 금 9개, 은 4개, 동 2개 등 총 15개의 메달로 151점을 획득, 한라중(97점)과 위미중(64점)을 따돌리고 2024년 우승에 이어 다시 정상에 오르는 기업을 토했다. 이밖에 남초부는 신제주초, 여초부는 한라초가 각각 남녀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각 부별 우승을 이끈 신제주초 이정현 교사, 한라초 고상훈 교사, 귀일중 김강범 교사, 한라중 명성재 교사가 각각 지도교사상을 수상했다.

위영석기자

‘전국체전 동메달’ 화북초 축구 마침내 전국 제패 화랑대기 전국유소년축구 울산 화진초 3대0 제압 우승



2026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한 화북초 축구부.

화북초 제국

전국소년체전에서 결승 문턱을 넘지 못했던 화북초 축구가 마침내 전국을 제패하는 패거리를 이뤄냈다. 화북초등학교(교장 이맹수)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열린 ‘2026 화랑대

기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에서 울산 화진초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며 3대0으로 우승을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화북초는 앞서 조별리그를 1위로 통과한 후 4강전에서는 충남 천

안시 라미시아 축구클럽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결승에 진출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경주시와 경주시축구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유소년 축구팀들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화북초는 2024년과 2025년 전국소년체육대회 4강전에서 탈락하며 2년 연속 동메달을 따낸 바 있다. 화북초등학교 교정호 교감은 “선수들의 땀방울과 지도자의 헌신,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의 뜨거운 응원과 지원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며 훌륭한 체육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위영석기자

노형초A·하귀초A팀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우승

노형초A팀과 하귀초A팀이 제20회 교육감배 전도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24점)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육상연맹 주관으로 지난 6일 한라중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14개 학교가 참가, 스피드레더, 크로스 홉, 정확히 던지기, 허들 왕복릴레이, 전방 스쿼트 점프, 유소년 투창, 포물러 원 등 총 7개 종목에서 학교의 명예를 걸고 기량을 겨뤘다. 13학년 이상부에서는 노형초A팀이 5개 종목에서 1위에 오르며 36점을 획득, 삼화초A팀(30점)과 한라초B팀(24점)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12학년 미만부에서는 하귀초A팀이 포물러 원 1위, 나머지 6개 종목 2위에 오르는 꾸준한 경기력으로 50점을 기록, 수원초A팀(47점)과 안덕초A팀(43점)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위영석기자

MLB 오타니 투구 중단 선언

투타를 겸업하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올해 투구 중단을 공식으로 선언했다. 오타니는 8일(한국시간) ESPN을 비롯한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에는 투수로 등판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타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타니는 “실망스럽지만, 이번 시즌을 돌아볼 때 하나의 경험·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면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시즌에는 더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2026년 제1차 정책토론회	6:05 TV 유치원 6:35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래블홀릭(재) 7:30 굿모닝 대한민국 8:50 생생정보 스페셜 9:30 일일드라마 목망의 빛(재) 10:10 KBS 아침 뉴스타임 10:30 인강극장 스페셜 11:10 슈퍼맨이 돌아왔다(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가족관계증명서(재) 9:30 930 MBC 뉴스 9:55 중계방송 2026 제1차 정책토론회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북 8:50 종은아침 9:55 SBS 10 뉴스 10: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1:00 열린TV 시청자 세상	8:20 어린 철학자 9:20 처음 배우는 시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왔다! 내 손주 13:35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 14:10 EBS 평생학교 스페셜 16:40 어린 철학자 17:20 남남 하어로 슈퍼잭 18:20 교향민국
KCTV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14:00 KBS 뉴스 스페셜 14:10 필도발상 스페셜 14:30 중계방송 국제 대정부 질문 정치 분야 16:00 시사간전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12:30 옥탑방의 문제아들(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뉴스타임 15:15 월드 24 15:45 도깨비 연애에 왜 왔니?(재) 16:00 TV 유치원(재) 16:30 영상앨범 산(재) 17:00 미아(재)로니 4 17:15 프린세스 캐처 티니핑 17:30 꿀벌 영화가 좋다	12:00 12 MBC 뉴스 12:25 얼마를 부탁해(재) 13:25 최고! 호기심 딱지(재)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쁜 좋은 날 16:55 MBC 특별생방송 네발 대종수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12:00 SBS 12 뉴스 12:45 위스킷 매직카드 13:00 보석아내 건강 수다(재)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00 KCTV 시청자 세상 17:20 KCTV 스페셜 18: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9:30 황금아침반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테마스페셜(재)	9:00 KCTV 9시 뉴스 10: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2:00 KCTV 시청자 세상 12:30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6:00 KCTV 시청자 세상 17:20 KCTV 스페셜 18:00 로컬여행 오정해보고 19:30 황금아침반 20:00 책 읽어주는 나의 세계 21:30 인터뷰 제주를 말한다
제주CBS FM 93.3MHz 90.9MHz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지역 소릴 극복 프로젝트 우리 동네 20:30 일일드라마 기쁜 우리 좋은 날 21:00 KBS 뉴스 9 21:35 KBS 뉴스 9 제주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2:50 KBS 뉴스라인W 23:30 이슈 픽 백과 함께 스페셜	18:00 경제플러스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목망의 빛 20:30 슈퍼맨이 돌아왔다 21:50 봉주르행집 23:10 실랑하는 남자들(재)	18:25 오늘N 19:05 가족관계증명서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유유니 컬러(재) 22:30 라디오스타	18:10 생방송 투데이 19:00 뉴스웬터스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골 때리는 그녀들 22:50 특별기획 퓨처리포트 2부 위대한 유산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규의 여행기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현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TBN제주교통 FM105.5MHz 105.9MHz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튜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통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9일

김종상 지단(組田) 작명역학 원장
경기대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내가 할 일이 생기고 지시할 일이 있다. 48년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면 이득이 생기거나 훗날 결과가 있다. 60년 서두르지 말고 한번 더 생각이 필요하며 신중함이 요구된다. 72년 정신적 고통이 밀려와도 눈동자만은 흔들리지 마라. 84년 돌팔을 하나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하면 결과가 좋다.

37년 여유와 차분함이 필요하고 안정할 시기. 49년 좋은 생각과 행동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 좋은 생각을 하라. 61년 열정이나 의욕이 강한 날. 활동성 있는 업은 이익 증가. 73년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력을 다하라. 정보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라. 85년 작은 일이라도 작심하고 실천하면 큰 결과가 좋다.

38년 오고 가는 정속에 믿음의 오가니 대화 필요. 50년 금전운이 길하나 인덕이 다소 부족하니 대인관계가 필요. 62년 명예가 실추되거나 손상이 따르니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74년 친구간 논쟁 또는 경쟁하면 패하거나 사이가 아주 멀어진다. 86년 친구를 초대해 함께 나눠 먹을 일이 생긴다.

39년 융통성이 없으면 대인관계를 넓혀라. 51년 사소한 일에도 인생이 따르니 조심하라. 63년 나에게 의존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 75년 할 일이 늘어나고 몸과 마음이 분주하다. 매출 증대, 영업활동이 길다. 87년 이성문제로 다투거나 결혼문제로 불화.

40년 주변과 마찰이 생길 수 있거나 일이 많아지니 오직 내 일에만 전념하라. 52년 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만 집중하라. 64년 마음의 문을 열고 포용하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유지하라. 76년 집안에 우환이 생길수 있으니 안부전화가 필요. 88년 이성교제가 이뤄지나 자신은 준비가 부족하다.

41년 잡념이나 생각이 많은 날이니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 53년 자녀의 일이나 자신이 하는 일에 변화를 주고 싶어한다. 65년 약속을 잘 이행하고 신용을 중시하라. 신뢰를 잃는 경우가 생긴다. 77년 매출이익이 따르거나 동업, 창업하려 한다. 89년 부모나 윗분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이성 교제 청신호.

42년 맞지 않는 정보에 귀를 기울이면 손실만 초래하니 호기심을 버려라. 54년 돌다리도 두드려가듯 신중함과 휴식도 필요. 66년 손재주, 도난, 분실수 우려. 78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흥이 될 수도 있다. 90년 논쟁이나 시비는 구설수에 오니 언행은 자제하고 참는 게 상책.

43년 마음의 문을 열고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을 유지하라. 55년 매매 또는 계약안이 있으면 부부가 결정하는 게 훗날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67년 자격 또는 면허를 갖고 하는 업은 기쁨이 배가 된다. 79년 희망이 생기고 의욕이 충만. 자신감을 갖고 도전하라. 91년 문서나 이동수가 있고 건강이 약해진다.

44년 무엇이든 하면 된다면 욕망이 강하다. 56년 상가 또는 문상 할 일이 생기거나 좋지 않은 소식을 접하게 된다. 68년 전문성을 가진 분야는 수익이 호전. 직장인은 신중하라. 80년 목표를 향해 추진하되 변동, 이동하지 마라. 92년 자신의 은덕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운으로 명예와 존경이 함께 한다.

45년 업무나 맡은 임무를 대충하면 말쑥의 소지가 발생하니 마무리를 잘하라. 57년 노력의 결과가 허망. 큰 기대는 금물. 69년 일에 성과가 있고 돕는 이가 능률이 배가 된다. 결과물을 반드시 나눠라. 81년 마찰 또는 시비가 생기니 부딪치지 마라. 93년 덕을 쌓는 지혜가 필요, 봉사할 일이 생긴다.

46년 경쟁자가 생겨 심각한 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58년 자만심과 독성이 일을 망가트리려는 격. 화합과 배려의 마음이 필요한 때. 70년 집에 있어도 마음은 외롭다. 상대를 찾을 것. 82년 직업 변화가 오고 미혼자는 이성이 다가온다. 94년 대인관계에 신뢰가 필요하니 약속이 생기면 거짓 말고 이행하라.

47년 돕는 이가 있어 추진력은 있으나 성과를 이루기에는 역부족. 59년 윗사람이나 거래처의 도움으로 재물을 얻는다. 71년 새로운 것을 좋아하면 구설 또는 불화가 생긴다. 이성적 교제는 신중하. 83년 새로운 계획이나 변화가 찾아오고 희망이 솟는다. 95년 회식이나 모임에 참석해 먹을 일이 생긴다.